테마칼럼

공간과 일상 | 문화의 향기 | 디자인 세상 | 과학과 정보

어려웠던 일상의 기억, 학동팔거리

천득염

"허름한 골목길서 뛰놀던 아이들, 엿장수의 가위소리, 매쾌한 연탄 냄새, 낙서 가득한 담벼락 이제는 볼 수 없는 기억 속의 풍경으로…"

놀라울 정도로 빨리만 변하고 있는 도시공간에서 우리에게 허름한 골목길은 더 이상 어려웠던 모습이 아니라 일상의 기억이 담겨있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기도 한다. 골목에서 뛰놀던 아이들과 엿장수의 가위소리, 희미한 전등, 매쾌한 연탄 냄새, 낙서 가득한 담벼락 등 이제는 볼 수 없는 기억 속의 풍경이다.

일장기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관리감독하기 쉬운 감옥 형태로 이해되는 학동 팔거리는 일제 강점기의 주택과 작은 골목길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근대화 이후 저소득층 도시인들의 생활공간이 되었고, 머지않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학동팔거리는 일제 강점기인 1936년 빈민주거가 난립하고 있는 광주천 주변이 홍수로 자주 범람하자 천변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을 느낀 일본인 杉山 부윤이 천 옆 높은 부지에 조성한 갱생지구이다. 영국인 Barnett 목사는 산업혁명 이후 일자리를 찾아 몰려드는 농촌인구와 도시빈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사회개량을 목적으로 인보운동(Settlement Movement)을 전개했다. 인보운동과 유사한 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갱생지구는 광주천 주변의 영세민 부락에 거주하고 있던 철거민을 집단수용할 명목으로 계획된 것이었다. 금교와 남광주철교 사이의 빈민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진흙으로 된 움막을 짓고 부락을 이루며 산다고 하여 토막민이라고 하였다. 이 토막부락의 철거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어서 철거민에게 보상비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갱생지구 학동팔거리는 특이한 도시공간으로서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기 저소득주민 지배정책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이해되며, 생활이 어려웠던 빈민층의 주거와 생활상을 현재까지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살아있는 흔적이다. 이곳은 생활빈궁자의 구호를 목적으로 조성되었지만 실은 일본제국주의 당국에 의해 이들을 지도통제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그러니까 언제나 분출할 수 있는 민족운동을 체제 내로 끌어 들이고 통제하려고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 외곽으로 확산하는 모습인 학동팔거리는 영국인 Jeremy Bentham의 '一望 감시시설'(panopticon)을 바탕으로 설계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실제로 벤담이 설계한 감옥 파놉티콘은 중앙이 비어있는 동심원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 즉 특이한 가로구성으로 보아 죄수의 교화와 지도를 위한 시설, 부랑자들을 감시하기 쉽도록 만든 가로공간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해방 이후에는 이러한 마을이 소박한 소시민들의 일상과 그들의 삶을 담는 도시공간이 되었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소용돌이에서 경제 사회적으로 자꾸만 소외되어 소시민이 되어 버린 이들의 공간인 것이다.

한없이 높고 넓으며 새롭고 세련되기만을 욕심내는 현대도시 안에 낯선 이방인처럼 남아 있는 이 공간을 위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를 잘 조사, 기록하여 두는 것에 불과하다. 헐리고 난 후에 흔적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근자에 도시인들은 슬로우시티처럼 옛날에 대한 호기심을 간직한 곳, 극장, 광장, 카페, 공방, 식당, 신성한 장소들이 있는 마을, 훼손되지 않은 경관을 가진 마을, 매력적인 장인들이 사람들의 기호, 취미, 건강 등을 고려한 제품을 만드는 그런 마을을 바란다. 세계 어디를 보아도 똑같은 무(無) 국적성의 공간에서 살고 있는 현대도시에 비하면 미래 도시공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김순호

암이 많은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암이 많아졌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할 때마다 "참!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졌구나"라는 생각을 든다. 농담이 아니다. 그리고 필자는 다른 사람들이 암이 걸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정신병자도 아니다.

그럼 암이 많은 나라가 왜 살기 좋은 나라일까. 그것은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콜레라와 맹장염, 폐렴 그리고 이질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나라. 이 때문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20세밖에 되지 않는 나라는 과연 살기 좋은 나라인가.

물론 우리나라도 수십, 수백년 전에 이 같은 일이 있었다. 콜레라가 한 번 휩쓸고 지나가면 마을사람의 반 이상이 몰살을 당하고 맹장염만 걸려도 해결 방법이 없어 결국 복막염으로 진행돼 고통 속에 죽어가던 시절. 태어나 세상 구경도 하기 전에 파상풍, 소아마비, 천연두로 아이들의 반 이상이 죽어나갔던 시절이 바로 그때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병들로 사망에 이르면 '의료사고' 취급을 받기 일쑤다. 이른바 '죽을만한 병'이 없어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 살게 됐고, 노인들이 잘 걸리는 병이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려야만 결국 죽게 되는 것이다. 지금도 후진국에서는 여전히 '죽기 아까운 병'에 걸려서 죽고, 반대로 선진국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있다. 그래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암 사망률일 높은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임에 틀림없다.

사실 암은 무서운 질병이다. 어떤 종류의 암이든지 일단 자기가 생겨난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전이되면 치료가 아주 힘들어진다. 암은 자신의 세포가 성격이 흉악하게 변하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암세포를 무턱대고 죽이려고 항암제를 쓰면 정상적인 세포도 같이 죽고 만다. 그래서 현재 암과 싸우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암이 전이되기 전에 찾아내서 제거해 버리는 것이다. 어쩌면 그것만이 유일한 치료법이다.

그렇다면 혈액검사와 같은 쉬운 방법을 통해 암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그런 검사가 몇 가지 있지만 문제는 너무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이다. 혈액검사상 수치가 올라가 있어도 암이 아닌 경우가 많고 또 암이 있어도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암의 초기진단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원시적인 방법 즉 방사선과에 들러서 흉부 방사선 사진과 초음파 사진을 찍고 또 내시경 검사를 받는 방법을 선택한다. 더구나 요즘은 고통스러운 검사는 대부분 수면상태로 검사해주는데 무슨 걱정할 일이 있겠는가.

주위에 보면 혹시 암이 나올까 무서워서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나중에 암이 진행돼 병원을 찾고 결국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환자와 가족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든다. 아주 약간의 용기와 가족들에 대한 조그만 책임감만 있었더라면 그런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휴가시즌이다. 그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휴양지를 찾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자신과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점검해보기를 꼭 부탁드리고 싶다.

〈광주기독병원 내분비내과 과장〉

기고

박종석

SK 중고차시장까지 진출, 너무한다

지금 우리는 정치 ·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슈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졸속으로 매듭지은 미국산 수입쇠고기 파문에 이어 북한군에 의한 금강산 민간인 관광객 총기 사망 사건, 일본의 뚱딴지같은 독도 영유권 주장 등으로 시끄럽다.

유류값, 물가 폭등에 경기는 계속 침체 늪으로 빠져들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신차 메이커도, 중고자동차 매매로 생계를 꾸려가는 중고차 시장도 유류값 폭등의 직격탄을 맞았다. 도무지 차가 팔리지 않아 살 길이 막막하다고 아우성이다. 휘발유 가격과 비슷하게 올라버린 경유차 시장은 더 어렵다. 본전은 고사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팔아보려해도 매수자가 없을 정도다.

광주에 등록 사업자는 120개다. 지난해까지 사업자 중고차 거래대수는 매월 전달보다 증가했다. 금년들어 사정은 달라졌다. 6월에 매도대수 3천282대로 5월보다 411대(11%), 5월은 4월보다 386대(0.9%)나 매도대수가 줄었다.

이같이 유류값 폭등에 깊은 내수경기 침체마저 겹쳐 중고차 시장의 불황은 더 깊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글로벌 기업 운운하는 국내 굴지의 SK그룹이 중고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무기는 막대한 자금력이다. TV, 라디오, 신문, 옥외광고 등을 통해 달콤한 문구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광고비로 130억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SK네트웍스가 중고차 시장의 특성을 무시한 과장광고에 전국 4천여 영세사업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세상이 놀랄 약속', '중고차 살 때 2년 4만Km 무상보증' 운운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 등) ③제1항 규정에 의한 고지에는 "성능 · 상태 점검에 대하여는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Km 이상을 보증하여야 한다"〈개정 05.2.5〉고 명시돼 있다.

SK는 연식 주행거리, 부품에 상관없이 무조건 구입만 하면 광고대로 보증해 준다는 것인지 광고에는 구체적인 상세 내용이 없다. 돈 없고 힘 없는 영세업자, 민초들은 법대로 같은 조건에서 영업하자고 호소만 하고 있다.

SK그룹은 지난 2000년에도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시도했다. 당시 매매업자들이 서울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며 생존권보호 차원과 대기업의 문어발식 기업 확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철회한 바 있다.

중고차업자들은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SK네트웍스의 조합원 자격박탈을 얼마전 이사회에서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했다. SK가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독도문제를 '영토수호 차원'서 강력 대응한다고 했듯 매매업자들도 SK네트웍스 문제를 '생존권 수호' 차원서 투쟁할 것이다. 대규모 집회에 SK주유소 이용안하기 등 SK그룹 제품불매운동도 계획하고 있다.

전국 매매업자들은 SK측이 자동차관리법대로 기존 매매업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영업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광주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

사설

당 대표도 인정한 한나라 '호남 배려 소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한나라당 지도부가 호남에 대한 배려에 소홀했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22일 광주일보를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소속사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과거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무늬만 호남인 인사들을 비례대표에 공천했고 18대 국회에서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며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을 정치계, 관계, 주요기관에 중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대표가 이명박 정부의 호남 소외 인사를 인정한 것이다.

실제로 18대 국회 한나라 비례대표 의원 25명 가운데 광주·전남 인사는 이정현 의원 단 1명에 불과하다. 17대 비례대표 의원 21명 중 광주·전남 출신은 전무했다. 한나라의 호남 배려가 얼마나 소홀했는지 알 수 있다.

호남 배제는 여당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인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청와대와 각료는 물론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호남 출신을 철저히 배제한 것이다. 전체 공기관장의 60%에 육박하는 29명이 영남 출신인 반면 호남 인사는 9명에 그쳤다. 사실상 영남 '싹쓸이'인 셈이다. '영남 공화국'이란 시중의 빈정거림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문제는 능력과 실력보다는 지연 편중 인사가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다. '망국병'으로까지 불리는 과거 군사정권의 지역차별 정책을 답습해서야 되겠는가. 지역편중 인사는 소통 부재로 촉발된 총체적 난국을 되레 소통 단절로 악화시킬 뿐이다.

정부·여당은 극심한 편중인사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으려면 특정지역 편중인사부터 시정돼야 한다. 호남이나 충청차별과 같은 말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다. "호남을 대표하는 인사를 정·관계에 중용해야 호남 민심이 돌아올 것"이라고 한 박 대표의 말이 빈말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나로우주센터 위성 발사 '연기' 안타깝다

올 연말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쏘아올릴 예정이었던 한국형 소형 위성발사체(KSLV-1)의 발사가 무산됐다. 러시아가 제작하고 있는 발사체 1단의 국내 인도와 고흥에 건설중인 발사대 시스템 설치가 각각 1~2개월 늦어져 연기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우주개발의 새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위성발사체 발사가 지연돼 아쉽다.

추후 발사시기는 KSLV-1 발사점검단이 기술적인 문제 등을 재검토해 다음달 결정한다. 러시아측이 한국의 발사 준비상황을 고려할 때 나로우주센터 발사대 시스템의 발사 준비가 내년 1분기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발사시기는 내년 2분기가 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설명을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없지 않다. 항우연은 관련기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건설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어 당초 계획대로 올 연말 발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발사시기가 연기된 배경이 궁금할 수밖에 없다. 일부에선 러시아가 예전과 달리 오일달러가 풍부해지면서 우주개발에 따른 첨단기술 이전이나 협력사업에 소극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의 기술과 설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다.

국제사회의 우주개발 경쟁은 치열하다. 미국과 러시아 양강체제에 유럽과 일본, 중국, 인도 등이 가세하면서 국가의 자존심과 미래를 걸고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위성과 발사체, 탐사분야 기술 등 우주개발 능력은 국력의 또 다른 척도라 할 수 있다.

소형 위성체는 우리의 우주개발 신호탄이다. 중요한 것은 발사 성공이지만 시기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는 이소연씨를 통해 세계 36번째 우주인 배출국이 됐다. 소형 위성체 발사도 성공해 위성을 쏘아올린 세계 9번째 국가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

無等鼓

대만과 한국

재임 중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돼 피고인 신분으로 지난 21일 법정에 출두하던 천수이볜(陳水扁) 전 대만 총통이 한 시민의 발길질에 엉덩이 꼬리뼈가 골절되는 수모를 당했다. 일간 대만 빈과일보(apple daily)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한 60대 우익인사가 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가는 어수선한 틈에 천 전 총통의 뒤에서 발길질을 했다. 나중에 통증을 느낀 천 전 총통은 병원에서 엉덩이 꼬리뼈가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천 전 총통은 재임 중이던 지난 2005년 12월 라파예트급 프리깃함(소형 구축함) 구매와 관련해 레이쉐밍(雷學明) 해군 장성 등이 거액의 수고비를 받았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현직 때는 국가원수의 면책특권에 따라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지만 천 전 총통은 퇴임 후 피고인이 돼 법정으로 향하다 봉변을 당했다.

대만 전 총통의 재판 소동이 일고 있는 사이 우리나라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과 현 정부간 대통령기록물 반출 시비가 점입가경이다. 노 전 대통령 측이 퇴임하면서 보안을 요하는 중요 기록물을 김해 봉하마을 사저로 옮겨간 일을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4일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유출에 관여한 노무현 전 대통령 측 비서관과 행정관 등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같은 날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노 전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기록물 인수인계 관련자 및 회사가 포함됐다.

국가기록물 반출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팽팽해 현재로서는 잘 잘못을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 이미 고발이 된 만큼 수사기관의 처리를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대만처럼 전직 국가원수가 포함된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생겨나는 것보다는, 서로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 훨씬 아름답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박치경 체육·여론매체부장unipark@

취객 차도 보행 교통사고 위험

얼마 전 밤에 시외 변두리에서 겪은 일이다. 어두운 밤이고 시외 도로라 급커브가 많아서 서행을 하며 차를 운행했다. 그런데 커브를 돌자마자 갑자기 도로 우측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 깜짝 놀랐다.

혹시 뺑소니 사고가 났나 싶어서 비상등을 켜고 차에서 내려 살펴보니 60대 후반 가량의 노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게 아닌가. 그 노인은 동네 슈퍼에서 소주를 마시고 집으로 가는 길인데 술 탓인지 덥고 잠이 와서 잠시 쉬었다가 가려고 도로가에 앉았다가 그만 잠이 들었다는 것이다.

요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홍보가 잘 돼 거의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보행자 음주는 줄지 않고 있다. 술에 취해 가던 보행자가 갑자기 차량 전방으로 뛰어들어 곤혹을 치룬 운전자도 있을 것이고 도로 중앙을 왔다 갔다 하는 보행자도 있다. 특히 어두운 밤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보행자가 많다.

보행자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야간에 음주상태에서 도로 주변을 보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배려했으면 좋겠다.

▲정은채·광주시 광산구 복룡동

엉터리 과일 당도 표시, 농산물 신뢰 훼손

며칠 전 할인마트에서 수박을 한 통 샀다. 당도 표시를 보고 골랐다. 하지만 집에서 먹어본 순간 당도 표시가 잘못 됐음을 알게 됐다. 겉으로 표시만 했을 뿐 실제로는 맞지 않았던 것이다.

수박은 빨갛게 잘 익은 게 당도가 높고 맛이 있다. 가끔 약간 누런 심지가 박혀 있는 것을 살 때가 있고 덜 익어서 빨간색이 아닌 연분홍빛을 띄는 것을 구입할 때도 있다.

수박의 당도 표시와 다르게 너무 맛이 없어서 할인마트에 전화를 걸어 항의를 했다. 소비자로써 당도를 믿고 산 것인데 이렇게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했더니 수박은 큰 것은 당도도 높기 때문에 큰 것을 구입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먹어보지 않은 과일을 기계로 측정하기 때문에 당도를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런 당도 표시는 왜 하는 것인가. 단맛을 믿고 사는 과일에 당도 표시가 부정확하다면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 아닌가.

우리 농산물이 FTA의 파고를 넘어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친환경뿐 아니라 맛, 신뢰성 등 모든 요소를 고루 갖춰야 한다. 그래야 농민들의 땀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유통분야의 선진화가 절실함을 느꼈다.

▲이충한·광주시 남구 구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19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마케팅국	2200-521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A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FAX	222-4267〉	조사부	2200-570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